

# Stewards

A Sermon for Preachers

# 청지기

설교자들을 위한 설교

James W. Knox 지음  
안성식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 Stewards

A Sermon for Preachers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1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 청지기

설교자들을 위한 설교

지은이 | James W. Knox

옮긴이 | 안성식

펴낸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1.4.16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com](http://www.ilovekj.com)

표지그림 | 이장용 [jy13b@naver.com](mailto:jy13b@naver.com)

표지디자인 · 편집 |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mailto:choilove72@hotmail.com)

■ ISBN 978-89-89741-28-2

■ 정가 1,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 청지기

## 설교자들을 위한 설교

---

이 글은 2000년 4월 미국 몬테나 주(Montana) 미술라(Missoula)에 있는 열린문 침례교회(Open Door Baptist Church)에서 제임스 형제가 전한 설교를 편집한 것입니다.

---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고전4:1-2)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그 자신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지 다시 한 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기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본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를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번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성도들은 바울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어 자신을 다른 형제들보다 높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고전 3:3-9). 그는 경배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여기게 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여겼으면 하는지 말해보자면, 저를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풀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설명해 나가는 것이 더 타당한 일일 겁니다.

사도가 자신을 청지기라 말한다는 건 곧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고용인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지기는 집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입니다.

만일 큰 부자가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다면, 종들의 우두머리가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의 관리자입니다. 그는 다른 종들의 지도자이거나 본이거나 감독자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모든 종들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청지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은 주인 집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종들은 어

느 누구도 주인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작은 오두막집에 앉아 자기들끼리 식사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고, 최초의 기독교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대한 선교사로 생각하길 원하지 않으며, 위대한 설교자로도 위대한 신학자로도 생각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겼던 것만을 기억해 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위대한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가까이에서 살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이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하거나, 버논 메기(J. Vernon McGee)가 위대한 성경 교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밖의 다른 유명한 사람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받았거나 자녀가 병원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고 해도 그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수고했던 모든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

로잡았던 것은 그가 위대한 진리들을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섬기는 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을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설교자로나 선교사 또는 서신서의 기록자로 여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 여겨지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히 복음주의자나 근본주의자가 많은 미국 기독교와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섬김 받을 교회를 차지하고자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들의 배를 불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다,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거나 그와 같이 어떤 파당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사람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결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야말로 바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 청지기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청지기의 자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14-15입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너에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후3:14-15)

집합적 의미로, 거듭난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함께 모이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종교적 전통과 성경적 진실 사이의 차이를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건물 앞에 서서 “오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집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거듭난 사람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각각의 건물의 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야외 잔디밭에서 모임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함께 모인 믿는 자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딤후3:4-5)

수세기 동안 남자들은 위 구절의 절반만을 잘라 보면서, 가족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집에서 왕이 되려고만 해 왔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자란 진정으로 무엇인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절의 앞 부분만 읽지 말고 전체 구절을 읽는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지배할 수 있으리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자신의 집을 다스린다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의미는 가정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지배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가정이 실패하는 이유는 가장인 남자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집을 다스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스리는 것’은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2로 가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하나님 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일은 집과 연관된 무엇을 하는 것이지만 청지기 자신이 그 집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청지기는 집의 주인도 아닙니다. 청지기는 일을 해 주며 그 집의 소유자나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43:19을 보십시오.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에서 그와 이야기하며” 누가 집의 소유자입니까? 이것은 요셉의 집입니다. 요셉의 집에는 요셉의 뜻을 따르고, 요셉의 요청을 수행하고, 요셉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십시오. 16절에서는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ruler)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매,” 문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집의 청지기는 그 집의 “치리자(ruler)”입니다. 이 집은 요셉의 집입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데리고 있었고, 청지기는 치리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독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이루어지도록 돌보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이제 잘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ruleth)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의 치리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뜻은 여러분의 집이나 가족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집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자가 집에 들어가서 가슴을 내밀고 “여러분의 왕인 내가 집에 왔소! 와서 내 구두나 닦아 놓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신 것을 알고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치리가 그 집에서 이루어지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부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부양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목사로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규칙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청지기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왕좌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설교자나 집사들 또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으로 돌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법으로 그들에게 강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의 집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남자들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신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백 명의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다섯 식구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머리이다. 그리고 내가 내 집을 다스린다.” 네,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6:9을 보십시오. “엘라가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

르사에 있던 자기 집의 청지기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였을 때에 그의 신하 곧 그의 병거들 절반의 대장 시므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니라.” 다시 한 번 청지기는 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1-8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가 집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포도원과 관련되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일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세 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놓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또 다시 그가 여섯 시와 아홉 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열한 시쯤에 나가서 놓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 종일 여기서 놓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이 경우에 포도원의 주인이 그의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보내

지만, 주인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청지기는 포도원 주인의 것을 가져가서 일꾼들을 섬깁니다. 즉 그것들을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하나님의 집과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고 주님께서 그 모임의 책임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을 주님의 진리들로 섬길 수 있는 청지기들을 사용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 있는 밭으로 일하러 나갔을 때 무엇을 전파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전파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전파해야 할지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전파해야 할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도 맡기셨습니다. 그들도 청지기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이런 것들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밭도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모인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것

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주님께서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청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오늘날 설교자들 사이에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청지기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들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나 그 나머지 일꾼들을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2. 함께 모인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모두 그들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청지기의 일을 주셨고, 밭(복음선포의 현장)이나 하나님의 집(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맞서려고 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런 위치에 서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고 창창한 앞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목사와 집사). 그것을 얻고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그러한 행동에 복을 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도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디오드레베를 도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찬탈자를 돕지 않으실 겁니다.<sup>1</sup>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청지기로 일할 곳을 원하거나 여러분이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도록 세운 청지기들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도둑이고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저는 동역자가 은밀한 모임을 통해서 설교자를 내쫓고 하나님께서 일궈주신 사역을 가로채서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그는 육신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치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일입니다. 청지기의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나 형제들의 모임을 망가뜨려서 여러분이 장악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청지기의 자격과 관련해서 모든 영적인 원칙을 훼손

---

<sup>1</sup> 여기서 말하는 “찬탈”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이간질 시켜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를 빼앗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역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있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앞의 4장에서 읽었던 문장과와의 전후 문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포도원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6-9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 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포도원의 맥락이 보이십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포도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신실한 사역자가 밭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포도원에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이제 9절의 뒷부분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건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

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건물의 개념으로 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으로 누군가 밭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얻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건물로 세워 나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보이십니까?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나요? 은혜로 세워 갑니다. 어떻게 세워 간다고요? 진리로 세워 나갑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서 건물의 재료를 얻었나요? 그것들은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재료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를 칭송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를 경멸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를 그냥 인기 있는 사람으로도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그 밭에 있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에 있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워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구절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

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보이시나요? 그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무례하게 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을 칭송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을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러한 균형감을 찾기가 힘듭니다.

##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청지기가 책임져야 할 두 가지가 있고, 청지기가 마땅히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청지기가 책임져야 할 첫째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드러나지 않은 신비는 없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Agatha Christy)나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 또는 하디 보이즈(Hardy Boys)의 추

리소설을 보면 처음부터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실마리를 얻고, 다음에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해답을 얻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도 신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들은 결국 신비를 벗게 됩니다. 여기서 실마리를 조금 찾고, 저기서 흔적을 찾고 다른 곳에서 증언을 얻으며 성경을 훑어 보면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신비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실마리와 해법들을 보여주는 책임을 주님의 청지기에게 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책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문을 찾고, 한 사람은 흥기를 찾고, 다른 사람은 증인들을 쫓아 다닙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조각들을 모아서 여러분이 추리의 윤곽을 떠 올리게 해서 그 문제를 풀게 해 줍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신비들을 배우게 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제게 보내 주셔서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그것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훨씬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연구해서 스스로 결론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sup>2</sup>

---

<sup>2</sup> 이것은 저자가 이전 시대에 성경을 연구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 즉 그들의 책을 읽고 성경 연구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역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었고, 하나님께 합당한 성경적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먹고 공부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임스 형제는 여러 책들을 읽고 많은 걸 알아냈겠군요!” 네, 저도 파고든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일주일에 5-6개의 성경 공부 테이프와 설교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매주 5-6권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얻어낸 모든 것은 앞선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밭을 일구어 놓았고, 누군가 밭에 씨를 뿌렸고, 누군가 이 밭에서 잡초를 뽑았고, 저는 그 밭에 가서 그냥 열매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

인생에 보내 주셔서 본이 되게 하였고, 교사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4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몸은 빵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누가복음 12:41-42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청지기는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보이십니까?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 43장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할까요?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집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엄격히 다스리고 소리치며 명령하고 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독자들 중에는 두려움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손에

는 회초리와 다른 한 손에는 몽둥이가 없다면, 그리고 시내산에서 막 내려온 것 같은 신비감이 자신에게 없다면, 자신의 아내가 거칠게 소리지르고 반항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성경만이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어떤 다른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 반지를 꺾었다고 해서 자신의 인격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본성도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느꼈던 그 느낌으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향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내에게 행복이나 복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율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명령들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갈3:24)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신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들 때문에 주님에게 신세를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4:19).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권능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롬 2:4). 우리는 최악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딤후 3:3-4).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남편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녀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설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강요하고, 권력을 사용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12:43-44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

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곳의 문맥은 구원받은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받는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집사가 되고 싶은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 설교단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 교회에서 인도자로 인정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저절로 신실하게 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별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이 이혼과 재혼 같은 것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처지와 상황들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오늘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설교단에 선 사람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 자신의 집에서 별 효과가 없었다

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바퀴벌레 잡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양복 재단사가 필요하다면,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의 노숙자를 집에 데려와서 저의 식구에게 노동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자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가정은 엉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설교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설교자나 교회 지도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화를 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아는 설교자나 또는 텔레비전에서 본 친숙한 목사, 혹은 자신이 읽고 은혜를 받은 책의 저자들을 두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이 잘못이라고 경고하는 가톨릭 신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진리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올바른 삶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관한 회계장부

에 뭔가 추가해야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섬겼다고 말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가정과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둘째 의무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4:10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루는 집에서 어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운전하면서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삼십 분 동안 들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설교 어땠어?” 아내는 “내용이 틀리진 않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무런 틀린 내용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온갖 은혜로 청증을 섬기고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는 저를 매우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많은 인내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 주셨던 것과 같은 마음과 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점을 성경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오 아버지,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25년간 같은 잘못을 했어도 주님께서는 한번도 여러분의 목을 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단에 서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할 때 험박하듯이 말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압박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25년간 친절과 은혜로 여러분을 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기소침하게 만들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불구가 되지 않게 하면서 빛과, 자유와 생명과 그보다 더 풍성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던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원하시고 지옥에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벧후 3:9).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죄를 제단으로 가져가지 않고 뒤로 숨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좋은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전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을 상처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행동이 가져오는 파멸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명령을 주신 것 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사기와 기만은 여러분의 창조주와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파멸시킵니다.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로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설교하면서 꼭 술꾼에 대한 미움과 경멸을 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구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법조문뿐이라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법조문 뒤에 은혜를 두셨습니다. 불 호수를 준비하셨던 같은 창조주께서 우리의 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대변하는 것입니다.

## 청지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청지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청지기에게 필요한 특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42-46은 청지기와 종을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요구 사항이 고린도전서 4: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요한, 마가, 기드온, 아론, 베드로, 다윗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 모두 기복이 심한 성격을 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때로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청지기에게 자신이 맡은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와의례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신의 일을 입증하고 수행해야 할까요? 그들 자신의 집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서는 지속적으로 일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훌륭한 설교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6에서 이에 관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과 은혜로써, 매일, 매주, 매년, 지속적으로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얼마간 사역을 했었다면,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했던 사람들과 수많은 설교자들을 돌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요란을 떨며 박수 가운데 화려하게 등장한 사람들 중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떠들썩하게 환영 받으며 등장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 참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면서 등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자 모임에서 주목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하고 건강한 성도들에게 사랑 받는 목사들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청지기가 신실하길 원하십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자신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 (called to preach).”<sup>3</sup>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정중

히 그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들이 다니는 신학교에 관한 것, 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젊은이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신을 섬기고 높여줄 사람들이 있을 때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형제들 중 양로원이나 교도소나 영세민 구제소나 거리에서 자신이 신실하게 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에 설교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욕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할 문이 열릴 길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실천 없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도중에도 섬기는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청지기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청년에게 다음으로 묻는 것은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설교를 준비했나

---

<sup>3</sup> “설교자로 부르받는다(called to preach).” 이 표현은 “성직자들”을 높이고 “평신도들”을 낮추기 위해 침례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계 2:6).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the ministry of preaching)”을 하라고 부르받았습니다.

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자신이 왜 여러 개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처럼 놀라며 어리둥절해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통 대화는 이런 식입니다.

“교회가 내일부터 형제를 고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제 말은 실제로 영적인 도움을 주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글썄요, 아마 3개나 4개 정도요?”

“형제는 일년에 52주 동안, 매주 3번에서 4번 사람들에게 들려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허… 글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형제가 이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형제가 해야 할 일이 좀 초라하지만 양이 많다면요? 형제는 상담도 해야 하고, 병원에서 온 전화도 받고, 아픈 사람도 위로해야 하고, 연로한 사람과도 만나야 하고, 10대 청소년들과 상담도 해야 하는 등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면 개인적인 연구와 기도시간은 아주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형제가 매주 규칙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 훈련과정을 거친 후, 전임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합니다.”

다음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거치는 전형적인 몇 가지 과정입니다.

A.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데 헌신합니다.

- B.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복음주의”<sup>4</sup>의 길로 들어서면서, 설교단에서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 C. “설교를 간단히 준비하는 법”, “회중을 감동시키는 설교법” 등과 같은 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삼일만에 위대한 설교 만들기”, “너무 바빠서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설교자를 위한 즉석 설교집”

여러분! 저는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청지기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알기 위해 디도서 1:7과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자가 자신의 집을

---

<sup>4</sup> 복음주의(evangelism)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근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전도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반면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는 쇼핑을 하고, 골프를 치고, 모임을 만들고, 자기 지식 과외 시키는 등의 일을 합니다. 몇 사람은 천막에서 또는 교회 부흥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드물게 복음 전도자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지체들이 세상 사람들을 나가서 데려와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복음 전도자는 교회에서 하루에 40-60분씩 목회와 전도사역을 하고 전임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일주일에 40-60시간씩 일해야 하는 전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리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치리한다는 것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자신의 집을 치리하게 세우셨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디도서 1:7을 보시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13:7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이 구절이 청지기를 치리자와 관련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그는 치리자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을 합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깁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깁니다.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나요?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청지기의 치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청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긴 하지만 그의 삶이 그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가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지엄한 설교단” 뒤에 서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종과 존경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명되었거나, 선출되었거나, 자리를 빼앗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지도력으로, 명령이 아니라 섬김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복종시키도록 부르십니다. 형제들이여,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강제로 식탁에 앉힐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따라 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로 복종시키는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앞서 말한 방법이 가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이 원칙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영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 구절은 문맥과 연관지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여! 여러분이 형제들을 사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걷어 부치고 그들의 발을 씻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내려 놓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7이 투자로 생기는 이자와 같은 것을 기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앞선 구절을 살펴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님께서는 모든 진리 속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